

## 이물 제거수술 1 例

조 준 행\*

개업수의사라면 동물의 위나 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은 흔히 경험하는 수술이다.

특히 개에게선 그들 특유의 타물질에 대한 호기심과 **훅고**, 씹어 삼키고 싶어하는 생리적 현상은 생활공간에 널려있는 잡다한 물건들로 인하여 장폐쇄를 자주 일으키게 한다.

개가 먹은 이물질은 많은 경우에 소장으로 옮겨지나 그 이물질이 크거나 그 수가 많을 때 위에 정체되는 수가 많다.

가장 많은 예로는 한살 미만의 강아지에서 작은 자갈, 단추류, 고무류, 유리류, 철제류, 프라스틱제품, 가죽제품 또는 뼈조각 등 잡다한 물건을 삼키고 고생할 때가 많은데 필자의 경험으로도 그간 바둑알, 작은 자갈, 토콘, 동전, 바늘, 지퍼 손잡이, 옷핀, 고무줄, 스폰지, 털뭉치, 복숭아씨, 양말집게, 프라스틱장난감 조각, 탁구공, 골프공, 야구공 조각, 비닐호스 조각, 유리구슬, 목걸이, 반지 등 잡다한 물건을 빼어낸 적이 있다.

이와같이 삼켜진 이물질은 오랜 시간 몸안에 남겨져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이물질의 끝이 모난 예리한 형태일수록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위가 폐쇄되는 경우도 불완전하게 혹은

\*청운동물병원

때때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물질이 위내에 장시간 정체되어 있어도 그 증상이 가벼울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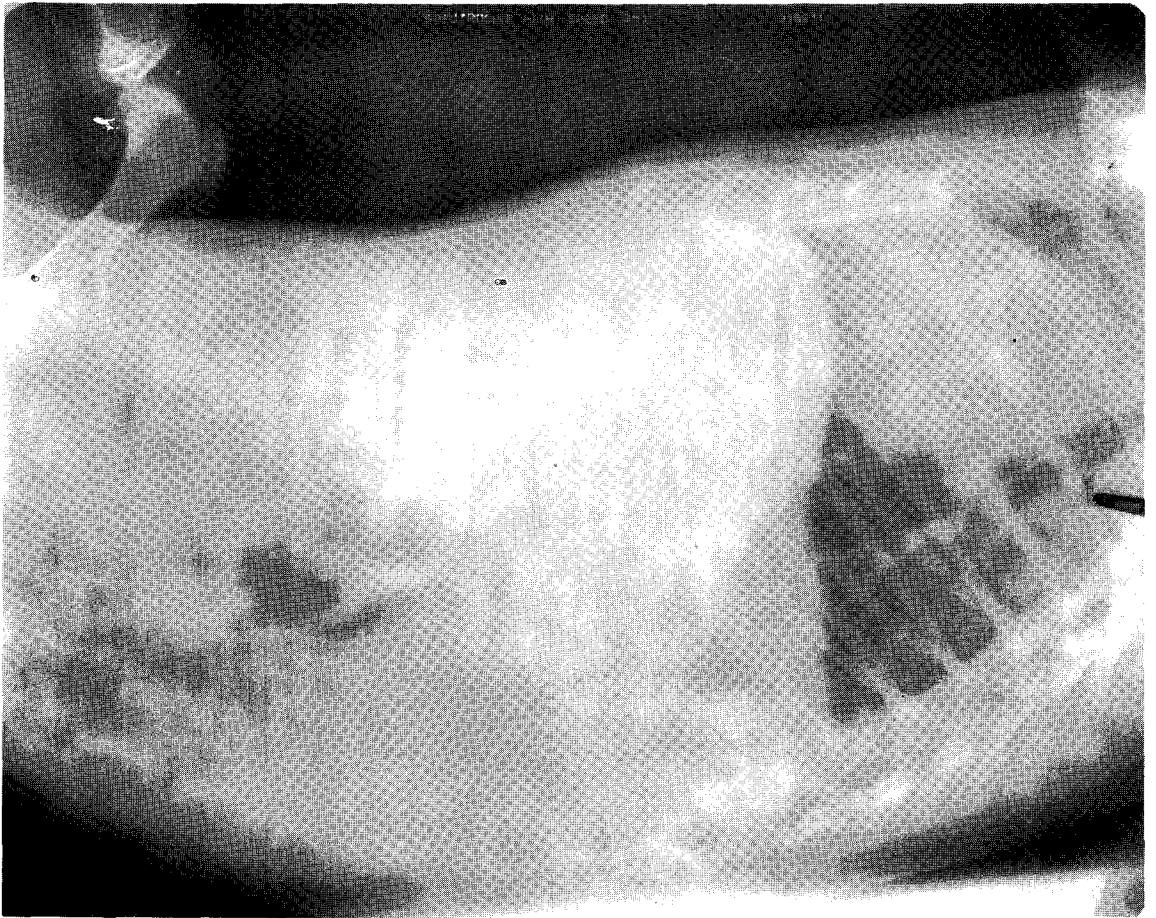
가장 먼저 발견되는 증상으로는 구토증이며, 이 경우 이물질이 위벽을 자극하여 식후 한시간 이내에 구토증이 일어난다. 그러나 마신 액체는 비교적 오래 위안에 정체된다. 이때도 표면이 부드러운 이물질은 위를 가볍게 자극하나 보통 1~2일간 식후의 구토를 거듭한 후 식욕도 상실하게 된다.

이때 위에 대한 이물질의 자극정도가 클수록 식욕도 비례해서 줄어들며, 또 이물질이 날카롭든가 혹은 오랜시간 정체하고 있을 때 위의 동통을 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이물질이 소화기내에 정체되어 있을 때, 몸은 마르고 구토증으로 인한 탈수현상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내의 이물질은 빨리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물의 전신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이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능한한 전신마취를 한 후 촉진을 한다. 이때 장내에 있는 이물질은 대개 촉진이 잘되나 위내의 이물질은 촉진으로도 용이치 않아 X선 촬영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에 유의



할 것은 이물질 자체가 돌이나 뼈 혹은 굳은 고  
무나 쇠붙이 등으로 X선상에 잘 투영되면 문제  
가 없으나 이물질이 유리나 플라스틱 등으로 X  
선이 잘 투시하는 물질일 때는 약제를 위내에  
주입시키고 X선촬영을 하든가 시험적인 개복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 촉진할 때 가능하면 조수로 하여금 상체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머리부분을 높여서 가슴  
부분을 높게하고 위를 아래로 내려뜨려 촉진한  
다면 위내의 이물질은 촉진하기가 용이해진다.

또 X선촬영시에도 동물을 옆으로 그리고 등  
으로 누이고 촬영이나 투시를 하면, 몸체내에서  
의 이물질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

때때로 강아지에서는 많은 뼈를 먹고 이것이  
직장에 저류하여 배변을 하지 못해 고통받을 때

도 있다.

이러한 이물질의 제거는 전신마취하여 위를  
절개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으나 작은 이  
물질이거나 표면이 부드러운 이물질은 단순한  
설사약 투여나 관장으로라도 제거가 될 때도 간혹  
있다.

이때도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X선 촬영  
을 하여 보면 하행결장이나 직장의 확대된 영상  
을 얻을 수가 있다.

이번 증례는 흔히 주먹가에서 볼 수 있는 5개  
월된 백색 진도견에 있어서 어려웠던 차돌 제거  
수술이다.

장폐쇄를 일으킨 강아지를 촉진하여 복강내  
의 이물을 감지하고 이를 축주에게 알리고 이해  
시켜서 이를 제거한다는 것은 강아지가 건강하  
기만 하면 매우 쉬운 수술이 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이번 차돌 제거수술에서 필자가 당한 곤란한 경우를 여러 회원에게 알려서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여러분은 필자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확실하고 신속한 수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86년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5개월된 백색 암진도건을 어느 부인이 갖고 왔다. 부인의 말에 의하면 며칠 전부터 절식 상태이고 처음에는 무엇을 먹든 먹으면 곧 토출하고 힘이 없어 언제나 늘어져 있다며 걱정하였다.

진찰을 해보니 가시 점막은 창백하고 열은 38° 맥박은 1분에 60회였으며, 털은 거칠으나 대퇴부의 두박함은 병나기 전까지는 잘 사육되었던 강아지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몹시 야위어 등 뼈나 골반골이 손에 잡힐 정도였다.

복부를 촉진하여 보니 곧 배꼽아래서 잡히는 물체를 감지할 수가 있었다.

그 물체는 굳은 것으로 봐서 마치 뼈조각같이, 강아지 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절대로 뼈를 준 적은 없고 단지 며칠 전에 생선을 주었으니 필경 생선가시가 걸렸으면 걸렸을 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물건이 내장의 일부가 아닌 것이 확인된 이상, 다시 강아지주인을 설득하여 확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X선을 찍기를 권유하였고, 강아지주인도 이를 승락하여 X선 촬영을 한 결과는 위의 필립과 같았다.

곧 주인에게 필립을 보여주고 여기 찍힌 이물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복 수술을 하여야 된다고 설명하여 수술 승락을 받았다.

어느 때와 같이 털을 깎고 소독을 하며, 마취의 정도를 보다가 개복의 순서를 밟았는데 막상 있어야 할 이물질이 손끝에 잡히지 않았다. 복강내에 손가락넣기를 2~3회, 그래도 잡히지 않아 직장부터 창자를 다 훑어보고 다시 창자를 복강밖으로 다 빼어 내어도 맹장과 하행결장 그리고 직장말단에만 약간의 변이 있을 뿐이었다.

할 수 없이 혹시 위내에 있나하고 위를 쉽게 만질 수 있는 좌측 상복부를 메스로 절개하고 위를 더듬어 보았으나 이곳 역시 아무것도 손끝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럭저럭 개복한 지 40분이나 경과하였는데, X선 필립에 나타났던 이물은 흔적도 없어 조금은 당황하였다.

다시 위를 만져보기 몇번 하였으나 이물은 역시 잡히지 않았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럼 맹장이나 하행결장에 있는 변이 X선에 이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여 장을 절개하여 내용물을 빼 보았으나 단지 굳은 변에 지나지 않았다.

강심장인 필자도 개주인 앞에서 조금 곤혹스러웠다. 다시 복강내에 집어넣던 창자를 모두 빼어 봤으나 아무런 변화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다시 빼낸 위에서도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위의 유문은 확실한데 위의 분문 부위가 다른 개에서와 반대의 형태와, 반대의 위치로 뒤바뀌어 있었으며 분문이 개가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왼쪽 흉부를 돌아 연결되었는데 이 분문이 줄어든 부위에서 다시 한번 확대된 부위가 있고, 그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그곳에 이제까지 고심하고 찾던 미물이 있어서 이를 몇번의 손놀림과 강아지의 몸을 고정대에 달아맨 채로 80° 정도 회전시켜서 빼어낸 것이 다음과 같은 차돌이었다.

그때 이 차돌을 본 부인이아가기가 이 돌은 자기집 안방에 있는 화분위에 놓였던 것이라 했다.

이번일로 X선 투시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그 이유는 수술시 이물질은 못찾을 때에 다시 X선 투시를 하면 빨리 이물질의 존재와 확실한 위치를 알 수 있겠고 또 한가지는 모든 장기의 구조가 꼭 정상적인 형태나 크기가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모든 수술을 한다면 지루하고 걱정스런 수술을 보다 빨리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